■ 치과 칼럼

심미 임플란트 치료 I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가 시작될 때는 심미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완전틀니의 부적절한 지지력과 유지력을 보안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가철성인 보철물을 고정성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임플란트 치료는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치아와 가까운 기능과 모양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 요소들이 하나하나 밝혀져 왔습니다.

심미 임플란트 치료라고 한다면 결국 자연치아와 구별이 힘들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일컫습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기에 이상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이유를 생각해볼 때 생체의 일부냐 아니면 이물질의 일부이냐 하는 점에서 출발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든 금속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취급하게 됩니다. 물론 생체적 합성을 지난 금속이긴 하지만 혈관이 티타늄에 영양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임플란트 주변조직은 치아 주변 조직과 달리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치아와는 다른 식으로 주변조직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치아의 앞쪽 뼈는 아주 얇은 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에서는 이렇게 얇은 뼈는 생존하지 못하고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아 뿌리의 식립 각도와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임플란트가 치아의 장축으로 심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식립 각도의 조절이 힘들다면 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 작업도 좋은 결과를 내리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요소는 치아 뿌리와 임플란트 크기 차이와 형태입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치아는 앞뒤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거나 환경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크기 차이는 임플란트 크라운의 모양이 제작의 출발점의 차이로 기인하게 되고 임플란트가 얇게 식립되었을 경우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잇몸 조직은 타입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잇몸이 얇은 경우 아주 작은 요소라도 금방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두꺼운 경우 약간의 변화가 잇몸 전체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잇몸의 타입은 뼈의 타입과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뼈의 타입도 주변 연조직의 반응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 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임플란트 주변 뼈의 위치 계입니다. 뼈의 위치가 주변 치아를 싸고 있는 뼈의 위치와 차이가 많을 경우 임플란트 주변 잇몸 조직이 함몰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면밀히 검사해서 결과를 예측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모든 요소들을 다 나열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만 이상 열거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임플란트 치료가 심미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예측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요소 분석력은 시술 의사에게 크게 달려 있으니 심미적인 부분이 크게 강조되어야 하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법률 칼럼

스폰서 회사가 필요 없는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 적정임금 신청, 광고 기간, 그리고 PERM을 통한 노동 인증 (Labor Certification) 절차 없이 영주권을 받은 취업2순위 영주권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NIW로 알려져 있는 이 취업2순위 영주권 신청 절차는 공학/과학 계통의 교수님/연구원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가장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1. 승인 요건

승인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전문성/연구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전문성/연구 분야가 미국의 특정한 주들 (States)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 (50개 주 모두)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 state level이 아니 national level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전문성/연구 분야가 미국에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노동 인증 과정 (적정임금/광고/Labor Certification)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뛰어난 업무 능력, 연구 업적 그 연구의 영향력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주의 사항

1) 연구 분야 업적/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들 – 많은 분들이 단순이 석·박사 학위만 있으면 NIW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추천서만으로 업적이나 업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학위나 추천서만으로 연구 업적/업무 능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들,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들을 제출해야 하고 추천서들은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이외에 연구의 결과로 받은 상이나 특허 등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NIW를 승인 받은 약대 교수님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교수님의 추천서 작성 시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교수님의 논문을 예로 들어 설명했고 추천인도 그 논문에 연구자로 참여했거나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지식이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 연구 관련 분야의 특허도 함께 제출하여 신청인의 연구 능력을 부각시켰습니다.

2) 연구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증명 – 이 부분이 변호사의 역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연구 분야가 미국의 국익 예를 들어 공중보건,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첨언

반드시 과학/공학/의학 분야가 아니어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고 또 신청인이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NIW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케이스를 예로 들면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의 경우 자신의 디자인 작품으로 받으신 저명한 상들, 유명한 전시회 등에 출품한 경력, 자신의 전시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뛰어난 능력을 증명했고 또 그 다자인이 상업디자인으로 연결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NIW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 조절과 관련된 시스템을 계발한 연구원도 NIW를 받으신 사례가 있고 또 예술계에 계신 분들도 NIW를 승인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정임금 결정만 거의 4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임금 결정 (4개월), 광고 기간 (2개월) 폼 LC 승인 (4–5개월) 등 거의 1년이 걸리는 노동인증 (LC) 기간 없이 바로 이민청원 (I–140)과 영주권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는 NIW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NIW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